

인공지능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만의 전략

이름 : 조은성

전공 :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

학번 : 20232678

1. 서론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AI)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인공지능의 시대’ 하면 우리는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을 상상하곤 한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아직 약인공지능(Weak AI)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인공지능은 대머리를 축구공으로 인식하며, 정신과 환자에게 자살을 권장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인종차별, 성차별을 말하곤 한다. 아직 인공지능은 만능이 아니며 ‘인간’답다.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만약 강인공지능(Strong AI)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인간을 초월한 인공지능 앞에서 우리는 삶의 의욕을 상실했을 것이다.

점점 발전해 가는 인공지능에 대항하여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탐구해 보자.

2. 본론

2-1. 생활 속 약인공지능

서론에서 약인공지능이 무능한 것처럼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약인공지능은 우리 일상의 전반에 걸쳐 존재한다. 우리 곁에 24시간 있는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의료, 금융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들까지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의 삶 속 깊숙이 스며들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린 인공지능을 소비하고 있었다.

2-2. 경쟁자 인공지능

우리가 왜 인공지능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소비자이자 사용자였으니, 고민의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비자가 아닌 경쟁자가 되면 이유를 알 수 있다.

물류업체 UPS는 2024년 1월 직원 1만 2천여 명을 해고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일 처리가 가능하여 더 이상의 인력이 필요 없어졌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금융업은 또 어떨까. 안타깝게도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직원 600명을 해고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는 안전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요’ 다. 거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인 Dropbox는 직원의 16%를 해고하였다. 해고 원인 중 하나로 ‘인공지능으로 인한 프로그램 작성 업무 대체’가 지목되었다.

미국의 구인구직 플랫폼 Resume Builder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80%는 이미 인공지능을 도입했거나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사회로 뛰어드는 순간, 사람뿐만 아니라 인공지능하고도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2-3. 인공지능 시대의 생존전략

이제 고민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래에 나의 생존 전략 3가지를 소개한다.

1. 타 학문과의 융합

타 학문과의 융합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준다. 과거 빌헬름 분트(Wundt)가 의학과 물리학을 바탕으로 실험심리학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연 것처럼, 현대에는 생명공학과 IT 기술을 결합하여 생물정보학(바이오인포매틱스)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탄생시켰다.

생물정보학은 컴퓨팅 능력을 활용하는 생명공학으로, 다양한 약물의 조합을 단기간에 테스트할 수 있어 신약 개발에 속도가 빨라졌으며, 유전체 분석을 통해 유전병 치료법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타 학문과의 융합은 단순하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2.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탐색

인공지능이 점차 발전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품질과 재고 관리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동화를 진행하고 있다. 각종 서비스 업계에서는 챗봇과 가상 비서를 통한 고객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활발해지고 있다.

자율주행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예를 들어보면 차에서 수집된 도로 데이터를 사고팔게 될 수도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험사가 출동할 필요 없이 인공지능이 과실을 분석해 처리하는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발전은 다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을 촉진하고 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금액이 전년 대비 27% 상승하여 45억 달러(약 6조)에 달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여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열 수 있다.

3. 소프트 스킬 강화

사람의 역량은 기술 능력인 하드 스킬과 대인 관계 능력인 소프트 스킬로 나뉜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능력 중에서 특히 소프트 스킬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하드 스킬은 인공지능이 비교적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예시로 알파고는 사람이 1000년이 걸릴 학습을 단 4주 만에 완료해 버렸다. 이미 2016년에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속도를 초월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만이 가진 자아를 활용하는 능력, 즉 소프트 스킬을 개발해야만 한다.

현대 사회는 인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타인과 의사소통하며 문제를 찾고, 팀워크를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적인 능력, 소프트 스킬의 강화가 필요하다.

3. 결론

이 글에선 ‘살아남는다’를 경제 활동의 지속 여부로 정의했지만, ‘살아남는다’는 말은 많은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 이는 '적응'에 그칠 수도, 더 나아가 ‘지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만의 ‘살아남는다’의 뜻을 정의하고 목적에 맞는 생존 방식을 찾아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인간이 모든 생명체 위에 군림할 수 있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도구를 사용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의 도구인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여, 도구에 의해 지배당하는 세상이 아닌 도구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